

쿠바 반노예주의 소설에 나타난 흑인노예 프란시스코: 노예제시기를 중심으로*

송 병 선
울산대학교

송병선(2014), 쿠바 반노예주의 소설에 나타난 흑인노예 프란시스코: 노예제시기를 중심으로.

초 록 일반적으로 반노예주의 소설이란 1830년대 쿠바 문학 태동기에 개혁주의 지식인 도밍고 델 몬테의 후원 아래 쓰인 일련의 작품들을 일컫는다. 이 글은 쿠바에 노예제가 존재했던 시기의 반노예주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작중인물 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흑인노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묘사되는지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반노예주의 작품에서 흑인노예 프란시스코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로는 만사노의 『자서전』과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 그리고 안토니오 삼브라나의 『흑인 프란시스코』가 있다.

쿠바 최초의 반노예주의 소설인 프란시스코 만사노의 『자서전』은 도밍고 델 몬테 문학 그룹의 반노예주의 소설가들에게 따라야 할 모델이 된다. 그들은 작중 인물 만사노를 도시의 순종적 하인으로 그리면서, 처벌을 받아 주인의 집에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에 주로 바탕을 둔다.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만사노의 『자서전』을 교정한 후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 『프란시스코』를 쓰면서, 주인공인 흑인노예 프란시스코에게 다른 분위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삼브라나는 『프란시스코』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흑인 프란시스코』를 쓴다. 이렇게 그들은 프란시스코라는 인물을 통해 흑인노예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는 삼브라나의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들어 세르히오 히랄의 영화〈또 다른 프란시스코〉로 재창조되면서 19세기 쿠바의 반노예주의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쿠바 혁명 이후에도 중요한 주제임을 부각시킨다.

핵심어 반노예주의 소설, 프란시스코, 흑인노예, 역사와 문학, 순종적 노예

* 이 논문은 2013년도 울산대학교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쿠바 반노예주의 소설의 특징

일반적으로 반노예주의 소설이란 1830년대 쿠바 문학 태동기에 쓰인 일련의 작품들을 일컬으며(Luis 1990, 1), 노예제에 대한 쿠바 신흥 부르주아계급과 식민주의자들의 충돌과 스페인 식민지 정권의 억압 정책에 대한 반대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문학적으로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풍속주의(costumbrismo) 같은 상충되는 문예사조에 속하기도 한다(Schulman 1977, 356). 비평가 오를란도 고메스 힐(Orlando Gómez-Gil)에 의하면, 쿠바 반노예주의 소설은 구조적 요소로 흑인과 노예제를 사용하면서, 흑인 소설의 선구자가 된다. 그는 이런 문학 작품들이 주인공인 흑인 노예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작품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노예제에 대한 완벽한 시선을 제공한다 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장르의 소설들이 노예제와 그 구성원들, 즉 노예와 노예주의자들, 노예주, 그리고 부유층과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그린다고 설명한다(Gómez-Gil 1968, 332-333).

쿠바 문학을 살펴보면, 흑인은 카나리아 군도 출신으로 쿠바의 까마구에이(Camagüey)에 정착한 실베스트레 데 발보아(Silvestre de Balboa)의 서사시 『인내의 거울 *Espejo de paciencia*』(1608) 이후 200년 넘게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이 기간에 흑인은 일련의 풍속주의 작품에서 주로 부차적 인물로만 역할을 맡았다. 특히 1790년부터 아바나 언론에서는 당시 흑인사회를 비판하고 동시에 백인 독자들의 웃음을 야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흑인들이 사용된다. 그러면서 흑인은 야비하고 게으르며 더러운 존재로 묘사되면서, 쿠바 국가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당시의 모든 아프리카계 쿠바인의 환유로서 이용된다(Uxó 2010, 134-135).

이런 상황은 183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극복된다. 쿠바의 자유주의자며 개혁주의자인 도밍고 델 몬테(Domingo del Monte)의 집에서 모인 작가들¹⁾은

1) 델 몬테의 문학그룹은 호세 안토니오 에체베리아(José Antonio Echeverría), 마누엘 사카리아스(Manuel Zacarías), 호세 사카리아스(José Zacarías), 시릴로 비야베르데(Cirilo Villaverde), 호세 마리아 까르테나스(José María Cárdenas), 니콜라스 까르

일련의 작품을 쓰는데, 그들의 주요 목적은 독자들에게 미학적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가들은 살바도르 부에노(Salvador Bueno)가 “이데올로기의 제공자”(Bueno 1986, 59)라고 여기는 호세 안토니오 사코(José Antonio Saco)의 작업과 유사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사코는 경제적 논지를 주장한 반면, “반노예주의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에서 독자들의 눈물을 쥐어짜는 모든 낭만적 감상성”(Bueno 1986, 61)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 의견에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노예주의 소설에서 상상력은 독자를 즐겁게 만들기 위한 창의적 과정의 일부가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수용하고 이해하던 쿠바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스페인 식민 통치 아래에서 쿠바는 설탕과 노예제, 그리고 노예무역에 바탕을 두고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 작품들은 그런 사회적 · 경제적 구조를 바꾸고자 의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19세기 쿠바 문학에서 흑인을 동정적 시선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성권력에 대한 반담론이자 서구적 관습에 대한 전복적 성격을 띤다(Luis 1990, 2). 즉, 식민 통치 아래의 쿠바가 설탕 산업과 노예제에 근간을 두었다면, 반노예주의 소설은 그런 토대에 도전하면서 그 사회를 움직이던 원동력을 의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흑인들을 역사의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쿠바 문화와 국가정체성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린다. 이렇게 반노예주의 소설은 흑인 노예를 주제로 삼아 스페인 식민지 치하의 쿠바에서 일상화된 노예제의

066

067

데나스(Nicolás Cárdenas), 호세 라몬 데 베탕쿠르(José Ramón de Betancourt), 호세 빅토리아노 베탕쿠르(José Victoriano Betancourt), 가스파르 베탕쿠르(Gaspar Betancourt), 라몬 삼브라나(Ramón Zambrana), 호세 실베리오 호린(José Silverio Jorrín), 라몬 데 팔마(Ramón de Palma), 마누엘 코스탈레스(Manuel Costales), 펠릭스 탕코 이 보스메니엘(Félix Tanco y Bosmeniel), ‘플라시도’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호세 델라 콘셉시온 발데스(José de la Concepción Valdés),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Juan Francisco Manzano), 호세 하신토 밀라네스(José Jacinto Milanés),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Anselmo Suárez y Romero), 호세 안토니오 신트라(José Antonio Cintra), 호세 델라 루스 까바예로(José de la Luz Caballero)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Rodríguez 1991, 182)

남용과 주인공 노예에 대한 잔인하고 부당한 형벌을 묘사하면서, 흑인과 노예들을 초기 쿠바 소설의 지배적 요인으로 만든다. 또한 이런 주제를 통해 기성체제에 대항하는 담론을 제공하며, 그 담론 속에서 직접적으로 노예주의 식민 체제에 도전한다(Luis 1990, 28).

또한 이 부류의 소설은 라틴아메리카 낭만주의와 유럽 낭만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변별성을 잘 드러낸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전자는 사회와 집단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개인주의적 성향에 바탕을 둔다.²⁾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면서,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를 제공하고 흑인과 노예제를 읽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소설로 분류되기도 한다.³⁾ 이런 복잡한 특징 때문에, 19세기 쿠바의 반노예주의 소설을 접근할 때는 순수하게 문학적이거나 철학적, 혹은 사회경제적이거나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왜곡되고 파편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술만(Iván Schulman)은 반노예주의 소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문의 관점보다는 여러 관점으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방법론을 사용해야만 그 작품들이 보여주는 문학적 · 사회적 · 역사적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다(Schulman 1977, 356)고 주장한다.

이렇듯 반노예주의 소설은 사회정치적 관점, 라틴아메리카의 낭만주의적

2) 일레아나 로드리게스(Ileana Rodríguez)는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낭만주의가 유럽의 낭만주의와 변별성을 갖는 대표적인 사례로 쿠바의 반노예주의 소설을 분석하면서, 낭만주의라는 문학 장르의 형식적 특징 이외에도 구체적 국가 현실에 적용된 자유주의 개념에 포함된 사회경제적 특징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낭만주의와 자유주의를 19세기의 문학사상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 사상의 발전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으로 설명한다(Rodríguez 1991, 166).

3) 라틴아메리카 역사 소설에 관해 로베르토 곤잘레스 에체바리아(Roberto González Echevarría)는 이렇게 지적한다. “역사와 허구라는 이항식은 라틴아메리카의 뜨거운 역사적 현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은 사회부정과 고통과 유린으로 가득하며, 이는 이기주의와 탐욕과 권력의 의지를 합리화하는 정치적 교조주의로 각인되어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시절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빵과 함께 이야기한다. 라틴아메리카 소설은 결코 더 나은 시절을 기다리지 않았고, 미학적이고 비판적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했던 순간을 개선시키려고 했다.”(González Echevarría 1984, 12)

관점, 역사문학의 시각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되며,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이면서도 배제된 흑인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들어 서성철(2013; 2014), 이은아(2014)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자들이 라틴아메리카 문화에서의 흑인의 위치에 대해 조명하고 있지만, 정작 흑인 소설의 효시라고 간주되는 쿠바의 반노예주의 소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예제에 반대하는 저항의 형태로서 반노예주의 소설은 1886년 쿠바의 노예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흑인 작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⁴⁾

이렇게 반노예주의가 현재까지도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은 사탕수수 농장에 바탕을 두고서 경제적·인종적 체제에 구속되어 살아온 노예의 조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담론-반담론과 억압-반란으로 이루어진 구조적 요인들이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 그리고 21세기까지도 쿠바 흑인들의 삶과 역사에 투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윌리엄 루이스(William Luis)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반노예주의 문학을 4개의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1835년의 태동기부터 1886년 노예해방까지이며, 두 번째 단계는 노예해방부터 쿠바공화국이 설립된 1902년까지, 세 번째 단계는 1902년부터 쿠바혁명이 성공하는 1959년까지, 그리고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쿠바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다⁵⁾(Luis 1990, 4).

이 글은 쿠바에 노예제가 존재했던 첫 번째 단계의 반노예주의 작품에 등장하는 작중인물 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흑인노예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묘사되

4)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로는 엘리세오 알투나가(Eliseo Altunaga)와 마르타 로하스(Marta Rojas)를 들 수 있다. 마르타 로하스에 관해서는 송병선(2013)의 글을 참고할 것.

5) 이는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분류로, 쿠바 반노예주의 문학의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범주는 아니다. 가령 페드로 바레다(Pedro Barreda)는 루이스처럼 역사적 순간에 바탕을 두고 19세기 반노예주의 문학, 공화국 소설, 혁명정부 소설로 분류하지만, 첫 번째 시기를 낭만주의, 두 번째 시기를 사실주의와 자연주의, 세 번째 시기를 아방가르드 문학으로 설명한다.

는지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두 시기로 나뉘는데, 전기는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Juan Francisco Manzano)의 『자서전 *Autobiografía de un esclavo*』를 시작으로 도밍고 델 몬떼의 문학 그룹에 속한 일련의 작품들로 구성된다.⁶⁾ 그리고 후기는 1873년 안토니오 삼브라나(Antonio Zambrana)의 『흑인 프란시스코 *El negro Francisco*』 이후 쿠바에서 노예제가 철폐된 1886년까지 쓰인 일련의 반노예주의 소설로 이루어진다.⁷⁾ 첫 번째 단계의 반노예주의 소설에서 흑인노예 프란시스코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로는 만사노의 작품과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Anselmo Suárez y Romero)의 『프란시스코 *Francisco*』, 그리고 삼브라나의 『흑인 프란시스코』가 있다. 이 작품들은 당시 쿠바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비평가인 도밍고 델 몬떼의 청탁으로 작성되었거나 그 그룹의 영향을 받았고, 따라서 당대의 문학적 · 역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II.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의 『자서전』: 반노예주의 소설의 모델

이히 알려져 있다시피, 쿠바 최초의 반노예주의 소설이자 쿠바 최초의 소설들 중의 하나는 도밍고 델 몬떼의 청탁을 받아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가 쓴 『자서전』이다. 델 몬떼와 그의 그룹은 공개적인 반노예주의자들이 아니었지만,

-
- 6) 반노예주의 소설을 연구한 윌리엄 루이스는 노예 출신 작가인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의 『자서전』과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 그리고 펠릭스 땅꼬 이 보스메니엘의 『쿠바 섬의 개인생활 일화들 *Escenas de la vida privada en la isla de Cuba*』(1838), 「아바나의 한 아이 *Un niño en la Habana*」가 반노예주의 소설에 속한다고 말한다(Luis 1990, 1). 일반적으로 이 지적은 타당하지만, 펠릭스 땅꼬 이 보스메니엘의 경우 루이스가 언급한 작품보다는 『페트로나와 로살리아 *Petrona y Rosalia*』가 포함된다. 그리고 델 몬떼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노예제에 관해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던 헤르뜨루디스 고메스 데 아베야네다(Gertrudis Gómez de Avellaneda)의 『삼 *Sab*』(1841)도 이 시기의 작품에 속한다.
- 7) 후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안토니오 삼브라나의 『흑인 프란시스코』(1873)를 비롯해 프란시스코 깔까그노(Francisco Calcagno)의 『로무알도, 많은 노예 중의 하나 *Romualdo, uno de tantos*』(1869/1887)와 시릴로 비야베르데(Cirilo Villaverde)의 『세실리아 발데스 *Cecilia Valdés*』(1882)가 있다.

흑인노예 출신인 만사노는 노예제 폐지의 명분을 외국에 알리려는 텔 몬떼의 부탁을 받고, 노예의 삶을 서술하는 『자서전』을 쓴다. 이 작품은 도밍고 텔 몬떼 그룹의 참석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읽히고 유통되었지만(Luis 1990, 83; Labrador-Rodríguez 1996, 14), 쿠바 반노예주의 소설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Branche, 63-64; Luis 1990, 39). 이 작품은 스페인과 영국 사이의 노예매매 금지협약 준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아바나에 설치된 공동사법재판소(Court of mixed commission)의 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영국인 리처드 매든(Richard Madden)이 수집하던 보고서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 반노예주의 그룹에 유포되면서, 텔 몬떼가 이끄는 쿠바 개혁주의 운동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 작품은 쿠바 문학사에서 미겔 바르넷의 『어느 도망친 노예의 일생 *Biografía de un cimarrón*』(1966)의 정보원이자 화자인 에스떼반 몬떼호(Esteban Montejo)와 더불어 노예가 직접 서술하는 두 증언 중의 하나이다. 형식적 구분 없이 서술되어 있지만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는 만사노가 흑인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지만, 여주인 후스피스 데 산파 아나(Jústiz de Santa Ana) 후작부인⁸⁾의 총애를 받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는 만사노가 열세 살이 되던 1809년에 시작된다. 후작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고약한 성격인 프라도 아메노(Prado Ameno) 후작부인의 농장으로 보내진다. 그녀는 사소한 말썽만 피워도 어린 그를 가혹하게 처벌하고, 만사노는 이 새로운 가정에서 인간이 감내할 수 없는 잔혹한 학대에 시달린다. 그는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는 가사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조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3부에서는 몰리노 농장에서의 모진 운명이 서술된다. 그곳에서 그는 갈수록 더 심한 벌을 받고 처음

8) 아바나가 영국에게 점령되었던 1762년부터 1763년까지의 시기를 다루는 마르타 로하스의 역사소설 『1년간 영국여자 *Inglesa por un año*』(2006)에는 흥미롭게도 후스피스 데 산파 아나 후작부인이 잊힌 인물들 중의 하나로 등장한다. 만사노의 작품에 등장하는 후작부인과 달리, 로하스의 작품에서는 쿠바 최초의 여류작가로 추정되며, 용감하고 편견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으로 도망치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⁹⁾

이 작품에서 만사노는 흑인 세계를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만 드러내는데, 그 세계는 그다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도덕적·사회적 수준에서 일반 흑인 계급보다 더 높다고 강조한다. 한편 백인세계에 관해서는 비교적 공정한 관점을 보여주면서 몇몇 사람들의 좋은 점을 그리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악행과 잔인함도 서술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아 극복의 열망을 품고 끄리오요 세계의 가치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백인세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흑인 노예에 의해 서술되었지만, 만사노는 백인의 세계관, 즉 자신이 자란 사회의 세계관을 지녔기 때문이다.

한편 백인 여성 인물들은 그의 작품에서 가장 큰 특색을 이룬다. 특히 그는 두 여주인을 대조적으로 소개한다. 후스피스 후작부인은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는 다정한 여자로 묘사하지만, 뿌라도 아메노 후작부인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고약하고 변덕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설명한다. 만사노는 이 여주인에게 심한 벌을 받으면서 노예제가 얼마나 끔찍하며 비인간적인지 알린다. 가령 후작부인은 사소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를 어두운 장소에 그를 가두어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게 하며, 농장의 십장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지시한다.¹⁰⁾ 그렇게 많은 장면들은 노예제의 참극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하지만 뿌라도 아메노 후작부인에 관한 만사노의 설명은 모순적이다. 만사노는 대부분 후작 부인의 부당함과 반복되는 처벌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경우 그녀를

9) 이 작품에 관해 보다 자세한 것은 송병선(2014)을 참고할 것.

10) “아주 사소한 악행을 저질러도 스물네 시간 넘게 바닥에 나무판도 없고 덮을 것도 없는 지하 석탄저장고에 나를 가두었다. 나는 아주 겁이 많았고 먹기를 좋아했다. [...] 내 방은 너무나 어두워서 한낮에도 촛불을 켜지 않으면 방안의 물건들을 구별할 수 없었다. 여기서 내게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서 나를 가두었고, 내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 집에서는 그런 명령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 누구도, 정말 단 한 사람도 내게 빵부스러기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럴 기회가 있어도 말이다. 내가 그 감옥에서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두려움으로 고통 받은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Manzano 1996, 56)

자기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그녀는 자기 없이 열흘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¹¹⁾ 이것은 제도화된 노예제에 의해 만들어진 노예, 즉 순종적이며 동시에 반항적이고, 슬프면서도 행복하며, 순진하면서도 세속적인 노예가 갖는 이중성과 모순이다.

다른 반노예주의 작품들이 백인 끄리오요 작가들에 의해 써진 것과는 달리, 만사노의 작품은 내부로부터의 관점, 즉 노예의 관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서는 커다란 고통과 더불어 침묵이 사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처벌받는 장면을 이렇게 서술한다.

어찌할 바 모른 채 이런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울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는 네 명의 검둥이가 파렴치하게 어머니를 제압하여 채찍질을 하기 위해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동안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하느님에게 기도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모든 걸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첫 번째 채찍소리를 듣자, 나는 사자, 호랑이, 혹은 가장 사나운 동물이 되었고 [...] 실베스트레의 손에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은 조용히 넘어가도록 하자.(Manzano 1996, 72)

이 대목은 이 작품에 나타나는 수많은 침묵과 생략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런 침묵과 빠라도 아메노 후작에 관한 모순된 묘사는 만사노가 노예로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데 두려움을 느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작가는 향후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복수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침묵의 전략으로 자기방어를 추구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Luis 1990, 40). 이렇게 만사노는 종종 침묵을 지키고 모순을 범하지만, 그의 증언은 노예주의 시기의 반노예주의 문학을 이해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그가 끄리오요 엘리트 지식인 작가들과 달리 실제로 노예제를 경험했고, 따라서 그 어떤 지식인도 그럴 수 없는 19세기 쿠바 사회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즉, 당

11) “내 여주인이 나 없이는 열흘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놀랍기 그지없다. 그래서 내가 열하루 혹은 열이틀 이상 갇혀 있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 나는 그녀가 가혹하게 모질게 대했지만 그녀를 사랑했다.”(Manzano 1996, 122)

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쿠바 사회를 과학적 ·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사람들처럼 공식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내에서 겪은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사노의 작품은 쿠바의 식민지 주체이자 노예로서 그들만이 접할 수 있었던 개인적 증언을 통해 노예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만사노의 작품이 노예제와 인종주의, 그리고 식민주의를 동시에 공격하면서 당대의 다른 낭만적 작품들과 변별성을 띠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요소들의 결합이다(Oleen 2010, 40).

III.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 낭만적 노예의 비극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의 『자서전』은 도밍고 델 몬페 문학 그룹의 반노예주의 소설가들에게 따라야 할 모델이 된다. 그들은 작중 인물 만사노를 도시의 순종적 하인으로 그리면서, 그가 처벌을 받아 주인의 집에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에 주로 바탕을 둔다(Luis 1990, 39). 가령 델 몬페가 “이 나라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노예와 노예무역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Galanes 1988, 257)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만사노의 『자서전』을 교정한 후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 『프란시스코』를 쓴다. 이 작품은 1838년에 완성되지만, 188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출간된다.

이 소설은 돌로레스 멘디사발(Dolores Mendizábal) 부인의 가사노예인 마부 프란시스코와 흑인 여자노예 도로테아(Dorotea)의 불행한 사랑이야기이다. 도로테아는 멘디사발 부인의 포악하고 못된 아들 리카르도(Ricardo)의 수양동생이다. 리카르도는 도로테아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한다. 소설 시작부분부터 리카르도는 자신의 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의 오펜팔인 십장 안토니오에게 말한다. “인생 망치고 말 거야. 다시 말하고 수백 번도 더 반복하겠어. 흑인에게 인간적인 높은 인생 망치고 말 거라고. 그들은 사람이 아니거든.”(Suárez y Romero 2003, 6) 그렇게 그는 노예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멘디사발 부인 역시 노예주의자의 위선에 사로잡힌 인물로 그

려진다. 처음에는 여자노예 도로페아의 보호자로 등장하면서 그녀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위적이고 변덕스러운 백인 기독교 부유층 여자의 모든 기만을 지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코와 도로페아는 서로 사랑하지만 여주인은 일련의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커져만 가고, 얼마 후 도로페아는 프란시스코와 불법적 사랑의 결실로 여자아이를 낳는다. 그러자 멘디사발 부인은 프란시스코를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고, 도로페아를 다른 집으로 보내 세탁부로 일하게 한다. 한편 여주인의 응석받이인 리카르도는 농장의 십장과 결탁하여 프란시스코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비인간적인 고초를 겪게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여주인은 자기 노예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결혼에 동의한다. 그리고 결혼을 시킬 목적으로 도로페아와 함께 사탕수수 농장으로 여행한다. 그러나 이런 의도를 알게 된 리카르도는 자기 어머니에게 부당하고 무자비하게 비난의 말을 퍼붓고, 여주인은 그의 모든 거짓말을 믿고 결혼 승낙을 보류한다. 그러자 도로페아는 비탄에 잠겨 애원하고, 여주인은 마침내 결혼을 허락하면서, 결혼 후에 두 사람이 리카르도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 하지만 이것은 무자비한 처벌보다 더한 결과를 낳는다. 리카르도는 프란시스코에게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처벌을 내리고, 도로페아는 그런 남편을 구하기 위해 리카르도의 불순하고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프란시스코에게 고백하자, 그는 절망에 빠져 자살하면서 삶에 종지부를 찍는다. 도로페아는 슬픔에 젖어 지내다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와 만사노의 『자서전』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럽의 노예철폐주의자들에게 쿠바 노예의 상황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작품이다. 1830년대의 다른 반노예주의 작품들처럼, 이 소설은 두 개의 모순된 과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노예 해방과 자유를 외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당대의 백인 독자들에게 실제 세계에서 반란 노예들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였다. 이런 이유로 노예주들에게 대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열망하는 유순하고 이성적인 노예 주인공이 선택된다(Williams 1994, 57). 또한 선-악의 이분법적 개념에 바탕을 두면서 주인공을 도식적으로 구성하여 노예제의 끔찍함을 고발하고자 한다.

여기서 『프란시스코』의 남자 주인공 프란시스코는 만사노의 『자서전』의 주인공과 흡사하다. 만사노와 마찬가지로, 프란시스코는 열 살 때 멘디사발 부인의 거처로 옮겨져 마부로 일하고, 따라서 프란시스코는 농장 노예보다 훨씬 좋은 대접을 받으며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노예주의자들이 흑인이란 감성도 없고 지성도 없는 사역동물에 불과하다는 생각과 대조를 이룬다(Bermúdez 2007, 33). 이 두 인물이 공유하는 또 다른 특징은 흑인에게도 영적인 자질과 고귀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프란시스코의 경우, 그의 영적 자질은 그의 남자 주인보다 높은 것으로 제시된다. 그를 리카르도 멘디사발과 비교할 경우, 비정하고 잔인하며 동물과 같은 사람은 백인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두 작품은 유순한 노예이자 ‘이성적 노예’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이 개념은 낭만주의 미학을 넘어 당대 지성계의 관심사를 알고 있는 노예의 이상화된 모습을 지칭한다(Schulman 1977, 358-359). 그런데 글을 쓰고 읽을 줄 알고 문학을 사랑하는 이런 ‘이성적 노예’는 꼬리요지 식인들의 자기 은폐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텔 몬테 그룹의 작가들은 식민지 지성계에서 자신들이 소외된 것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노예 주인공에게 문학에 대한 사랑과 식민 사회에서 자신들이 받던 사회적 억압을 수렴시키면서 암시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은폐 전략을 통해 노예의 상징적 재현을 조작했고, 상이한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신흥 공공영역에 개입할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Aguilar Dornelles 2012, 2).

이 작품에서 프란시스코의 지적 능력은 잔혹한 노예제로 인해 무시당한다. 수아레스 이 로메로가 주인공을 ‘이성적 노예’로 제시하고 자신의 이데올로기

적 입장에서 작중인물을 구성한다는 것은 다음 대목에서 잘 나타난다.

비천한 사람들과 일하면서도 읽고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는 완전한 무지의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노예에게 지식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현상이었다. 그런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지만, 책이 없고 집이 없었기에,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의 분명한 재능은 안타깝게 버려지게 되었다.(Suárez y Romero 2003, 8)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이 작품에서 반노예주의를 이상주의적이며 부르주아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계급적 상황과 노예제의 경제적 결정요인보다는 개인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asiello 1978, 20). 사랑과 이별, 그리고 노예들에 대한 억압은 전통적으로 결혼이라는 약속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방해하면서, 노예주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정도를 벗어나고, 그렇게 기독교적 자비를 위반하는 악한 인물로 그려진다. 반면에 프란시스코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오로지 낭만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고상한 야만’이라는 전통적 문학 패턴을 따른다.

이렇게 소설 『프란시스코』는 흑인 노예들을 백인 노예주보다 더 훌륭하고 고상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익히 알려진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인공은 소설 속에도 도덕관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상화되어 나타난다. 프란시스코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다정하고 키도 크고 잘 생겼으며 강인하며 이성적이다. 한눈에도 독자는 흑인이 작가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으며, 백인 인물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란시스코는

- 12) “모든 하인들 중에서 충성스럽고 열심히 일하며 악습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두드러졌다. 그는 프란시스코였다. 열 살 때 아프리카에서 끌려나왔고, 그래서 맨디사발 부인은 자기 바람대로 그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그의 겸손한 성격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었다. [...] 그의 명석한 머리와 다정다감한 마음씨 이외에도, 하느님은 그에게 매력적인 육체를 부여하시면서 은총을 베풀었다. 키도 다른 노예들보다 컸으며, 태도는 능글하고 부드러운데, 항상 고개를 들고 걸어 다녔다. 흑옥의 피부는 순백의 눈과 치아 때문에 매우 빛났고…….”(Suárez y Romero, 2003, 8)

낭만주의 주인공들의 전형적인 자질을 갖는데,¹²⁾ 이것은 작가가 당시 유행하던 유럽 낭만주의 주인공들의 자질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흑인 인물 속에 흡수하여 노예의 끔찍한 삶을 반영하고, 당시 쿠바 흑인 노예의 삶을 그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흑인노예 프란시스코에게 낭만적 주인공의 전통적 속성을 부여하면서, 아프리카계 인물이 사회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는 세상의 편견을 제거한다. 그가 텔 몬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구상한 생각에 따라,¹³⁾ 수아레스는 프란시스코의 문화적 타자성의 흔적을 제거하고 증오와 경멸을 받는 인물 대신 동정심의 대상이 되는 노예를 만든다(Williams 1994, 82).

지금까지 살펴본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의 『자서전』과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와 더불어 펠릭스 땅꼬 이 보스메니엘의 『페트로나와 로살리아 *Petrona y Rosalía*』, 그리고 헤르프루디스 고메스 아베야네다의 『삽』(1841)을 마지막으로 흑인 노예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노예제 시기의 반노예주의 소설은 1844년에 일어난 ‘계단 음모(Conspiración de la Escalera)’ 사건 이후 침묵을 지키게 된다. ‘계단 음모’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봉기가 쿠바에도 반복될 수도 있다는 압력과 두려움 아래서 쿠바의 총사령관 레오넬도 오도넬(Leopoldo O'Donnell)이 마탄사스(Matanzas) 농장에서 노예들이 봉기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노예뿐만 아니라 자유 흑인과 몰라또

13)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프란시스코라는 인물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그려야만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실 저는 노예제라는 끔찍하고 괴로운 굴레 아래서 신음하는 흑인 노예를 그리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처럼 유순하고 상냥하며 천사나 성인의 자질로 가득하겠습니까? [...] 프란시스코는 아주 특별한 예외입니다. 그는 노예제라는 슬픈 결과에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텔 몬테 선생님,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노예들을 보고 슬픔에 잠겨, 저는 제 감정을 해소할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고, 그 작품에서 아프리카 인종의 광포한 적들인 백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어려운 상황에 눈물을 흘리는 백인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저는 프란시스코에게 기독교적 체념과 유순함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노예제라는 더럽고 추한 토양 사이에서 거의 기적과 같은 것이지 아무 데서나 번성하는 특성이 아닙니다. [...] 이것이 제 실수의 원인입니다. [...] 소설가는 자연,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방해야지, 상상의 영역에 창의력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Del Monte 2002, 346)

도 심하게 처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텔 몬떼와 펠릭스 땅꼬는 쿠바를 떠나야만 했고, 프란시스꼬 만사노는 문학을 그만두고, 흑인 시인 플라시도(Plácido)는 처형되었다. 그리고 흑인에 대한 두려움은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다.

이후 30년 넘게 쿠바 문학은 흑인 대신 원주민에게 관심을 보이고,¹⁴⁾ 흑인은 특히 연극과 시에서 어릿광대의 수준으로 전락하여 기괴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인물 역을 맡는다(Portuondo 1968, 32). 그리고 18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일련의 소설 덕분에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시기의 반노예주의 소설은 처음에는 1830년대 반노예주의 소설을 이어받고 계승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점차로 새로운 형식을 만들면서 접근하게 된다. 1873년에 출간된 『흑인 프란시스꼬』 이후부터 거의 식민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전개되는 이 후기단계는 보다 잘 도안된 흑인 인물을 보여주고 있으며, 19세기 낭만주의를 이미 극복한 쿠바 작가들은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IV. 안토니오 삼브라나의 『흑인 프란시스꼬』: 흑인노예와 백인 노예주의 일치단결

1873년에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출간된 안토니오 삼브라나의 『흑인 프란시스꼬』는 노예제 시기의 후기 반노예주의 소설을 여는 작품으로,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꼬』의 또 다른 판본이다. 삼브라나는 최초의 반노예주의 소설이 출간된 이후에 태어나지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니콜라스 데 아스까라테(Nicolás de Azcárate)의 집에서 열린 노예폐지 모임에 참석하고, 그곳의 독서 모임에서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미출간 원고를 읽게 된다. 이 소설은 도밍고 텔 몬떼의 청탁이 아니라, 쿠바 작가의 소설을 알고 읽고자 했던 칠레의 귀족부인 아센시온 로드리게스 데 네꼬체아(Ascensión Rodríguez de

14) 이런 현상은 1825년에 쿠바의 흑인 인구는 거의 200만 명에 육박했지만, 원주민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바 현실과 유리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Necochea) 부인의 부탁을 받아 이루어진다(Luis 1990, 4-5).

삼브라나는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작품을 다시 쓰면서 그가 제대로 그리지 못했던 프란시스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의 작품에서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 주제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주인공의 인종성은 제목에서부터 강조된다.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프란시스코가 “부족의 노예”(Súarez y Romero 2003, 8)라고 밝히지만 그 이후 주인공을 기독교 세계 속에 완전히 위치시키면서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에 삼브라나의 소설은 프란시스코의 문화적 변별성을 기록하기 위해 보다 의식적으로 노력한다.¹⁵⁾ 가령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신원이 아프리카라는 것만 서술되지만, 삼브라나는 프란시스코가 선조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장면을 제공한다. 즉,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문화와 분리되어 있고, 그를 부족 공동체에 재통합시키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그가 죽는 순간에야 이루어진다. 반면에 삼브라나의 소설은 주인공이 속했던 부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노래의 기능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지평선에 부합하고자 한다(Williams 1994, 120).

『흑인 프란시스코』는 결코 사랑을 결혼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한 채 노예주에게 여러 유형의 학대를 당하는 한 쌍의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은 프란시스코와 주인이 욕망의 대상으로 같은 흑인 여인을 원하면서 사랑의 삼각관계로 얽히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프란시스코는 자살하고 흑인 여자노예인 까밀라는 프란시스코

15) 그러나 삼브라나 역시 아프리카 기원의 문화 양식을 ‘야만적’ 혹은 ‘미개한’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대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말해서 야만적 삶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아주 구체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야만적 삶에 대한 향수는 존재한다.”(Zambrana 1978, 31)

16) 몇몇 비평가들(Barreda 1979, 98; Coulthard 1962, 12-14)은 삼브라나의 작품과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작품이 기본 줄거리와 주요 등장인물들, 그리고 사탕수수 농장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다른 비평가들은 삼브라나의 작품이 사건의 중간에서 시작하며, 미국인인 루시가 등장하고, 까밀라의 광기가 전개되는 과정이 다르다면서,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작품과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의 사랑을 잊지 못해 미쳐서 죽어버린다. 그리고 주인 까를로스는 속죄하기 위해 노예제와 싸운다.¹⁶⁾

이 소설의 분위기와 내용은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작품과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주인공 프란시스꼬와 까밀라는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인물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응축되어 있다. 프란시스꼬는 마부로 일하는 노예이며, 아프리카 전사 종족의 후예답게 자존심이 강하고 고결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노예 주인들을 살펴보면, 호세파 부인은 『프란시스꼬』의 여주인인 멘디사발 부인처럼 보호자이자 괴팍한 이중적 성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흑인들을 혐오한다고 밝힌다. 호세파 부인은 자기 아들에게 흑인들에 대해 “나는 흑인들을 한 명도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아. 내가 혐오하는 인종이야.”(Zambrana 1978, 24)라고 말한다. 황금 식기가 사라진 것이 프란시스꼬의 행동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후, 호세파 부인은 다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까를로스, 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항상 그 흑인이 우리 곁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 흑인을 마부로 두겠다는 것은 너 같은 젊은이의 이해할 수 없는 변덕일 뿐이야. 아무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노예일 뿐이야.(Zambrana 1978, 26)

삼브라나의 『흑인 프란시스꼬』는 전기 반노예주의 소설과 분명한 차이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꼬』와 비교하면 더욱 잘 드러난다. 『프란시스꼬』의 주인공은 낭만적 유형의 영웅적 차원으로 그려져 있지만, 삼브라나의 작품은 쿠바 노예제에 관한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는 인물을 살펴보고 노력한다. 또한 삼브라나는 주인공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묘사

17) 삼브라나의 작중인물은 낭만적 분위기와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여성 인물인 까밀라는 관능적인 물라파의 전형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노예주의 작품에서 물라파의 등장과 몇 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영속화되었는지에 관해 윌리엄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흑인과 물라파 여인들은 19세기 쿠바의 노예 소설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 소설가의 주요 관심사는 노예 자체보다도 노예제의 해악이었다. [...] 그러나

하려고 시도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행동에 담긴 심리적 과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¹⁷⁾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노예의 상황과 그를 억압하는 제도를 포착하고자 하며, 그래서 잔인한 처벌 장면은 삼브라나의 작품에서 보다 빈번하게 등장한다(Bermúdez 2007, 43).

그래서 프란시스코와 까밀라의 관계 또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전개되며, 백인 청년인 까를로스도 백인 주인의 기존 도식에 빠지지 않는다. 노예주는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소설처럼 완전히 사악하고 잔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체제의 희생자이고 체제로 인해 천덕스러워진 청년이다(Barreda 1979, 88). 이 작품의 에필로그에서 까를로스는 엔리께 델 몬테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 늑우치는 어조로 노예제가 모두에게, 즉 백인과 흑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한다(Zambrana 1978, 145).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죽자, 미국북군에 입대하여 남부군과 싸우면서 흑인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소설은 쿠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용하거나 혹은 아프리카의 유산을 버리고 백인 문화와 사회에 절대적으로 통합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로 여기는 순종적이고 이성적인 노예를 거부하면서 주인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지만, 그것은 폭력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 그리고 까밀라는 『프란시스코』의 도로테아처럼 억울한 여인이거나 시릴로 비야베르데의 『세실리아 발데스』의 세실리아처럼 백인과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소망하는 흑인 여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도권을 갖고 까를로스의 변신을 시작하게 만드는 여자로 등장한다. 이것은 반노예주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덧붙여 말하자면, 아직도 그들은 19세기 사회가 유색인종의 여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관해 많은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후 수많은 작가들에게 청사진이 되었던 이런 여자들의 묘사 패턴을 만들어냈다.”(Williams 1993, 11) 한편 삼브라나는 까밀라의 육체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녀에게는 영혼을 부드럽게 도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미친 듯이 불타게 만드는 것이 있다. 그녀의 자태는 섬세했고, 움직임은 우아한 고양이 같았으며,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하기보다는 키스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었으며, 목소리는 달콤한 말을 뜨겁게 만드는 신묘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풍성하며 구불거렸고, 허리는 뱀처럼 뜻하지 않은 선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까만 눈, 촉촉하고 애수에 찬 눈은 마치 열정적이고 불가해한 약속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였다.”(Zambrana 1978, 125)

흑인노예와 흑인 여인, 그리고 백인 농장주가 마침내 공평하고 정의로운 쿠바를 위해 공동의 투쟁을 벌이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10년 전쟁¹⁸⁾ 중에 쓰인 이 소설은 쿠바 국가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Uxó 2010, 149). 하지만 당시 수많은 흑인 노예들이 정치적 독립을 희망하며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작품의 프란시스코 역시 허약하고 자기 파괴적인 노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V. 흑인 노예 프란시스코의 역할: 권력에 대한 반담론

1835년에 후안 프란시스코 만사노는 도밍고 델 몬떼의 청탁을 받고 최초의 반노예주의 소설을 쓴다. 그리고 『자서전』에서 프라도 아메노 후작 부인의 부당하고 잔인한 처벌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자기는 이유도 없이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노예제에 바탕을 둔 반노예주의 소설에서 만사노의 삶과 글은 여러 반노예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 의해 반복되면서, 만사노가 그린 노예의 모습은 재창조된다. 즉, 유순한 가사 노예, 이성적 노예, 주인의 집에서 사탕수수 농장으로 보내지면서 묘사되는 노예제의 악습, 주인공 흑인 노예가 받는 부당한 처벌 등은 재활용된다. 1839년에 안셀모 수아레스 이 로메로는 만사노의 문법과 철자의 오류를 교정하고,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프란시스코』를 쓴다. 그리고 안토니오 삼브라나는 칠레의 문학모임에서 『프란시스코』 원고를 읽고 그 작품의 미진한 부분을 전개시키기 위해 『흑인 프란시스코』를 쓴다.

이 글은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의 흑인 노예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세 편의 반노예주의 소설의 텍스트와 사회적 · 정치적 맥락을 비롯하여 상호텍스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작품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쓰였으며, 작가들

18) ‘쿠바 전쟁’ 혹은 ‘대전쟁’이라고 불리며, 스페인군과 맞선 첫 번째 독립전쟁이다. 1868년 10월 9일에 시작하여 1878년에 산혼(Zanjón) 협정으로 끝을 맺는다.

은 유럽적 가치로 규정된 흑인의 이미지에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문학 담론을 확장하는 최초의 노력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Luis 1990, 40). 또한 다른 반노예주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노예제로 인해 흑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며, 노예주의의 권력남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흑인 노예 프란시스코는 작품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등장하며, 작가들은 자서전이나 낭만주의 혹은 사실주의를 사용하여 작중인물의 죽음이나 도주를 보여주면서, 선-악의 이분법적 구조를 이용해 흑인-백인과 관련된 편견을 도치시키거나 무효화하려고 애썼다.

19세기 쿠바의 반노예주의 소설은 사코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텔 몬테 그룹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노예제가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의 도덕적 부패를 야기한다고 여겼고, 그것은 그들의 소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 쿠바의 미래는 노예제에 종지부를 찍는 것에 있었지만, 그것은 백인의 도덕관을 쇄신하고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했다(Uxó 2010, 135-136). 이것은 내부적으로 백인 지배계층의 입장과 경제적 발전을 위협하지 않은 채 식민지 상태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열망과 관련되어 있었다. 텔 몬테의 문학 그룹은 당시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키고 흑인들이 받는 학대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작품들을 썼지만, 동시에 아이티에서 일어난 흑인 혁명과 유사한 것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은 개혁주의 입장을 보여주지만 결코 혁명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호세 안토니오 포르투온도(José Antonio Portuondo)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의 비난을 받은 요인이었다. 포르투온도는 반노예주의 문학을 배제주의이며 최루성 문학이고, 흑인 노예는 ‘기독교적 체념’에 젖어 아무런 반항적 행위도 없이 잔인한 형벌로 고통 받다가 결국 자살한다고 힐난한다. 그러면서 이 작품들에서 노예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착한 노예의 순종성은 찬양되고, 미온적인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

는 그 어떤 어조도 피한다고 지적한다(Portuondo 1968, 35).

그러나 이런 뽀르뚜온도의 견해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마르크시즘 비평가인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인 델 몬떼 그룹의 구성원들에게서 반노예주의 혁명의 안티테제를 보며, 이 작품들이 써진 당대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뽀르뚜온도와는 달리, 마리나 갈베스(Marina Gálvez), 윌리엄 루이스 혹은 역시 마르크시즘 비평가인 살바도르 부에노 같은 비평가들의 판단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이런 반노예주의 소설의 이데올로기적·형식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당시까지 전례가 없던 중요한 문학 흐름을 시작했다는 내적 장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19세기 쿠바 소설에서 흑인 작중인물에 대한 동정적인 묘사는 그 자체로 권력에 대한 반담론을 형성한다고 밝히면서, 철저한 검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Bueno 55; Gálvez 112; Luis 2).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작품들에서는 분명히 온건 개혁주의 성향이 감지되지만, 분명한 것은 델 몬떼의 그룹에서 탄생된 소설들이 출간 당시 스페인 식민 당국의 즉각적이고 적개적인 반응을 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충격을 주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그 작가들이 원했거나 예견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Bueno 1986, 12), 바로 이 점에 반노예주의 소설의 최대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흑인 노예의 상징인 프란시스코가 역사 속에 묻히지 않고 120여년이 흐른 후 세르히오 히랄(Sergio Giral)의 영화 <또 다른 프란시스코 El otro Francisco>(1974)에서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19세기 반노예주의 작품이 얼마나 큰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극복되어야 하는지를 대표적 사례이다.

수아레스 이 로메로의 『프란시스코』를 완전히 재구성한 <또 다른 프란시스코>는 소설처럼 노예의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재생하면서 시작되지만, 이내 노예역사의 진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모습을 비판한다. 즉, 영화의 1부는 『프란시스코』의 이야기를 재생산하지만 2부는 원작품과는 다른 ‘또 다른 프란시스코’와 ‘또 다른 리카르도’가 서술되면서 원작품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

으로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리카르도가 도로떼아를 냉정하게 강간하고, 역시 아무런 감정도 없이 프란시스꼬에게 죽을 정도로 매를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살조차도 흑인 노예들이 노예제도에 항거하는 행동이며, 그것은 아프리카 유산에 뿌리박고 있는 행동임을 밝힌다. 또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영국인들이 진정으로 어떤 도덕관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비롯하여, 쿠바 사탕수수 농장에서 흑인 노예를 감소시키고 설탕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계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도 서술된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 프란시스꼬를 중심으로 살펴본 분석 대상 작품들은 19세기 쿠바의 반노예주의라는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기에 단순한 과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누가 쓰는가, 어떤 관점에서 쓰는가, 어떤 점에 관심을 보이는가에 따라 프란시스꼬라는 흑인 주인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흑인의 상징인 프란시스꼬를 재창조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에 관한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서성철(2014),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아프로 · 아르헨티나인」,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27, No. 2, pp. 109-132.
- _____(2013), 「보두신앙과 정치: 18세기 아이티 노예해방 운동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Vol. 15, No. 2, pp. 45-67.
- 송병선(2014), 「후안 프란시스꼬 만사노의 『자서전』 읽기」,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Vol. 7, No. 1, pp. 251-274.
- _____(2013), 「현대 쿠바의 정체성 형성과 혼혈의 패러다임: 마르타 로하스의 반노예주의 소설 3부작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Vol. 15, No. 1, pp. 47-78.
- 이은아(2013), 「아프로쿠바니즘(afrocubanismo)의 의미와 한계: 룬바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4, No. 1, pp. 277-302.

- Aguilar Dornells, María Alejandra(2012), “El esclavo y el letrado: Máscaras de la autorepresentación en la temprana narrativa antiesclavista cubana”, <http://www.slu.edu/colleges/AS/languages/confluence/pdfs/vol2art1.pdf>.
- Barreda, Pedro(1979), *The Black Protagonist in the Cuban Novel*,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Bermúdez, María Elena(2007), “Marta Rojas y la literatura femenina de combate”, Dissertation, Athens: Georgia State University.
- Branche, Jerome(2001), “Mulato entre negros’ (y blancos): Writing, Race, the Antislavery Question, and Juan Francisco Manzano’s Autobiografía”,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20, No. 1, pp. 63-87.
- Bueno, Salvador(1986), *El negro en la novela hispanoamericana*, La Habana: Letras Cubanas.
- Coulthard, G.R.(1962), *Race and Colour in Caribbean Literatur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Del Monte, Domingo(2002), *Centón epistolario*, Vol. II, La Habana: Imagen Contemporánea.
- Galanes, Adriana Lewis(1988), “El Album de Domingo Del Monte (Cuba, 1838/39)”, *Cuadernos Hispanoamericanos*, No. 451-452, pp. 255-265.
- Gálvez, Marina(1990), *La novela hispanoamericana (hasta 1940)*, Madrid: Taurus.
- Gómez-Gil, Orlando(1968), *Historia crític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González Echevarría, Roberto(1984), “Prólogo al coloquio”, *Historia y ficción en la narrativa hispanoamericana*, Caracas: Monte Avila, pp. 9-13.
- Labrador-Rodríguez, Sonia(1996), “La intelectualidad negra en Cuba en el siglo XX: El caso de Manzano”, *Revista Iberoamericana*, No. 174, pp. 13-25.
- Luis, William(1990), *Literary Bondage: Slavery in Cuban Narrativ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anzano, Juan Francisco(1996), *Autobiografía de un esclavo*,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Masiello, Francine(1978), “The Other Francisco: Film Lessons on Novel Reading”, *Ideologies and Literature*, No. 5, pp. 19-27.
- Mraz, John(1997), “Recasting Cuban Slavery: The Other Francisco and The Last Supper”, Stevens, Donald F.(ed.), *Based on a True Story: Latin American History at*

- the Movies*, Washington: Scholarly Resource Inc., pp. 103-122.
- Oleen, Garrett Alan(2010), "19th Century Plantation Counter-Discourse in Juan Francisco Manzano, Gabriel de la Concepción Valdés(Plácido), and Eleuterio Derkes", Dissert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 Portuondo, José Antonio(1968), "El negro. Héroe, bufón y persona en la literatura cubana colonial", *Unión*, 4, pp. 31-36.
- Rodríguez, Ileana(1991), "Liberalismo esclavista y romanticismo abolicionista", *La Palabra y el Hombre*, No. 79, pp. 165-184.
- Rojas, Marta(2006), *Inglesa por un año*, La Habana: Letras Cubanas.
- Schulman, Ivan A.(1977), "The Portrait of the Slave: Ideology and Aesthetics in the Cuban Antislavery Novel",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292. 1, pp. 356-367.
- Suárez y Romero, Anselmo(2003), *Francisco. El ingenio o las delicias del campo*, <http://www.biblioteca.org.ar/libros/71039.pdf>.
- Uxó González, Carlos(2010), *Representaciones del personaje del negro en la narrativa cubana*, Madrid: Verbum.
- Williams, Claudette M.(1993), *Charcoal and Cinnamon: The Politics of Color in Spanish Caribbean Literature*,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 Williams, Lorna Valerie(1994), *The Representation of Slavery in Cuban Ficti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 Zambrana, Antonio(1978), *El negro Francisco*, La Habana: Letras Cubanas.

송 병 선

울산대학교
avionsu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12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1일

The Black Slave Francisco in the Cuban Antislavery Narratives: The Cases of the First Period Novels

Byeong-Sun Song

University of Ulsan

Song, Byeong-Sun(2014), The Black Slave Francisco in the Cuban Antislavery Narratives: The Cases of the First Period Novels.

088

089

Abstract The Cuban narrative in the third decade of the 19th century marked the launch of an approach to the black subject within the island. As is well known, the antislavery narrative refers to a group of works written in Cuba during that period. Among the many antislavery work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racter of Francisco in three seminal novels of the first period, which spans from the beginning of the period to the emancipation of the slaves: Juan Francisco Manzano's *Autobiography*, Anselmo Suárez y Romero's novel *Francisco*, and Antonio Zambrana's *El negro Francisco*.

In the works in question, the authors describe through the character of Francisco the image of the black slave and the cruelty of the slavery system from their own perspective. Although some variation can be noted, Manzano's life became a model for these antislavery novels in which Francisco appears as a docile and passive house servant who suffers unfair punishments at the hands of the white slaveholder. These images were repeated by other antislavery writers because Manzano's text influenced Suárez y Romero's novel and Zambrana's text was indebted to Suárez y Romero's work. The rewriting of Francisco does not end in Zambrana's novel, however, but continues into the 20th century with Sergio Giral's movie *The Other Francisco*, which recreates and criticizes *Francisco* as a means of incessant critical reflection on what we know and how we know it.

Key words Antislavery narrative, Francisco, Black slave, History and Fiction, Docile Slave